

농지은행 안내문, 디자인씽킹으로 더 쉽게

✎ 오공환 기자 | ☎ 승인 2025.11.11 18:01 | □ 호수 1035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업무 혼선 줄인 행정혁신 임대차사업 절차 간소화... 현장 이해 돕는 실질적 개선책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지사장 노경환)가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안내문을 새롭게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은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기법을 도입해 제작한 것으로, 현장 업무의 혼선을 줄이고 직원들의 안내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디자인씽킹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공감과 아이디어 도출, 시안 제작, 검증 단계를 거쳐 해결책을 찾아가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이다.

영주봉화지사는 이 기법을 행정업무에 적용해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농지은행 사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내문을 완성했다.

특히 이번 안내문은 핵심 내용과 절차를 도식화하고, QR코드를 삽입해 모바일 접근성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해졌으며, 공사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노경환 지사장은 "이번 안내문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농지은행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공환 기자 okh7303@hanmail.net